

대전가톨릭대학교
2013년
자체평가연구보고서

2013년 12월 10일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목 차

머리말

제 I 장 서론	3
1. 자체평가의 목적	3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4
3. 자체평가의 추진과정	6
4.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조직	6
제 II 장 대학 개황	8
1. 대학의 설립목적	8
2.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적·목표	8
3. 중장기 발전계획	9
4. 주요 연혁	14
5. 행정 조직 및 기구	15
6. 교수 현황	16
7. 직원 현황	16
8. 학생 현황	16
9.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16
10. 주요 시설 설비 현황	21
제 III 장 자체평가 실시 방법	22
1. 자체평가의 대상	22
2. 자체평가의 자료	22
3. 자체평가의 지표와 산출식	22
4.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25
제 IV 장 자체평가 결과	27

1. 학생영역	27
2. 교육영역	30
3. 교육여건영역	36
4. 대학재정영역	41
제 V장 평가결과의 종합 및 제언	45
1. 종합	45
2. 제언	47
제 VI장 부록	49
1.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49

제 I 장 서론

1. 자체평가의 목적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자체평가 중심의 대학평가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를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교육을 통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번영과 문화 창달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본 대학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본교의 교육 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른 특수성과 독자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교육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자체평가의 기본 방향은 본 대학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평가 기준을 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①대학의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한 자기점검 평가체제 구축, ②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의 연계, ③대학의 교육여건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현황에 대한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평가를 토대로 자체평가결과 공개와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및 신뢰성제공으로 학부모,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한다.

2) 대학 발전계획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평가가 이루어 지며, 추진실적을 대학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체제를 정착한다.

3) 자체평가는 교육 및 연구수준에 대한 대학정보공시제의 항목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4) 대학 자체 및 외부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핵심역량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재정투입계획 및 정책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자체평가는 평가결과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본 대학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한다.

첫째, 평가지표는 핵심적인 지표로 구성하며, 국내의 모든 대학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평가지표는 학생, 교육, 교육여건 및 재정부분으로 구성되며, 가톨릭성직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교의 특성상 교육여건과 재정 부분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

셋째, 자체평가의 모든 과정은 자체평가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세부적인 자체평가의 진행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동시에 본 대학은 가톨릭교회의 봉사자로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본교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자체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본교는 1998년의 1주기와 2006년의 2주기 대학종합평가 그리고 2009년과 2011년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 운영과 교육 체계의 질적 향상,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 및 대학 간의 협동을 통한 대학의 보편성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2013년 자체 평가는 2011년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우리 대학이 유사 성격의 타 대학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또는, 미흡한지를 가늠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하였다.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교육적 장치들에 관한 평가지표를 살펴봄으로써 드러난 취약점 내지는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런 노력은 이후에도 학교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다.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가 공시되고 여러 대학과의 정보공유로 문제점 및 개선점이 도출된다면, 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본 대학의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의 설립 목적과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연차적인 계획이라는 형태로 확인될 것이며, 이는 대학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3. 자체 평가의 추진과정

자체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추진일정을 수립하였다. 이 일정에는 자체평가 연구의 추진일정을 비롯하여 보고서 집필,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평가 이후 그 결과를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대학의 자체평가는 수립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연구를 담당한 연구위원과 관계되는 교직원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평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연구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결과들을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공유하고자 하였다.

-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계획수립: 2013년 6월
- 자체평가 연구지표 개발 및 세부항목 자체 평가: 2013년 6월-10월
- 1차 자체 평가연구보고서: 2013년 11월
- 영역별 자체 평가 수정 보완 및 개선: 2013년 11월
- 2차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작성: 2013년 12월
- 자체평가 연구 위원회 결과 서면평가: 2013년 12월
- 자체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 공시: 2013년 12월

4. 자체 평가의 추진체계 및 조직

1) 자체평가기획위원회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도서관장 및 영성부장을 당연직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학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직 위	성 명	기 능
위 원 장	교학처장	이 대 근	1.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심의 2. 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및 재정 확보 3. 기타 자체평가 관련 주요사항 심의
위 원	사무처장	이 상 욱	
	도서관장	이 성 재	
	영성부장	황 광 현	
간 사	교학과장	강 동 수	

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자체평가 총괄 수행자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하되 평가를 수행할 인적자원이 충분한 대학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① 본교 평가방향과 관련사항 제시
- ②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개발 및 연구
- ③ 항목별 평가 세부기준 개발 및 연구
- ④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소 속	구 분	성 명	비 고
신학과	위 원 장	이 대 근	총 괄
	위 원	한 필 수	학생
		김 유 정	교육
		강 동 수	교육여건
		김 남 희	대학재정
	간 사	이 용 남	

제II장 대학 개황

1. 대학의 설립목적

본 대학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참으로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건전한 젊은 인재들과 가톨릭사제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려는 가톨릭 정신을 근거로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진리와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다양한 학문적 방법으로 연구·고찰하고, 나아가 이를 미래 지향적으로 구현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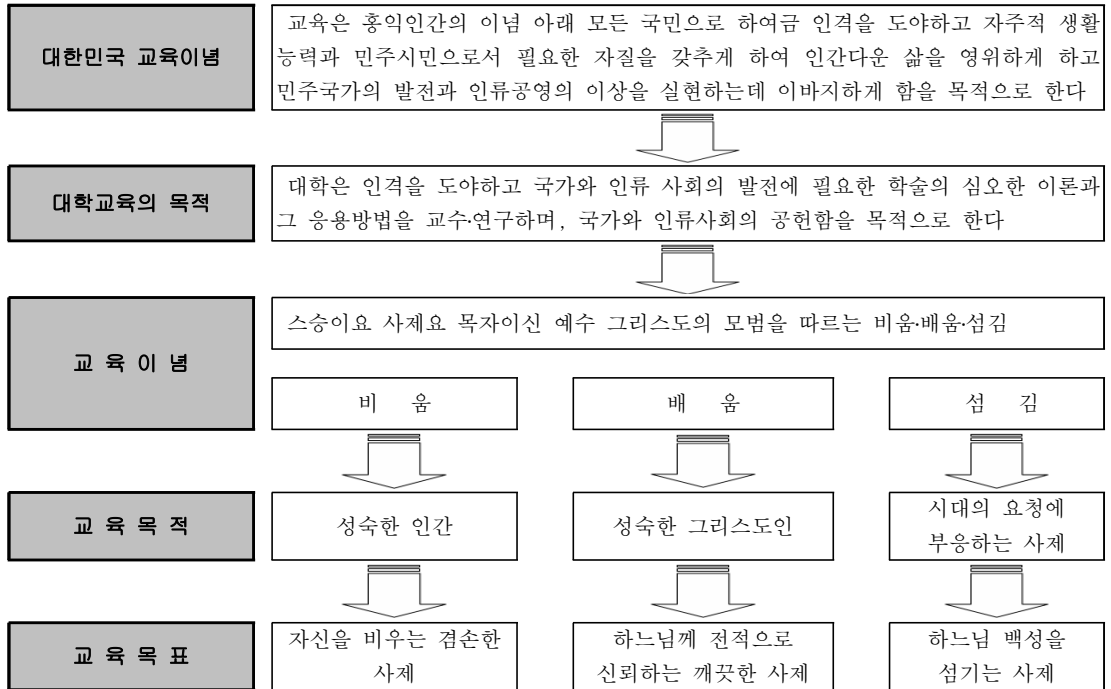
2. 대학의 교육이념 및 목적·목표

본 대학의 교육이념은 ‘스승이시고, 사제이시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바탕으로 비움, 배움, 섬기는 참된 사제 양성’에 두고 있다. .

교육이념은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제’라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목적을 통하여 구현되며, 실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즉 ‘비움→성숙한 인간’이라는 교육이념과 목적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사제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움→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깨끗한 사제’를 목표로 하고, ‘섬김→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사제’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의 연계성을 개관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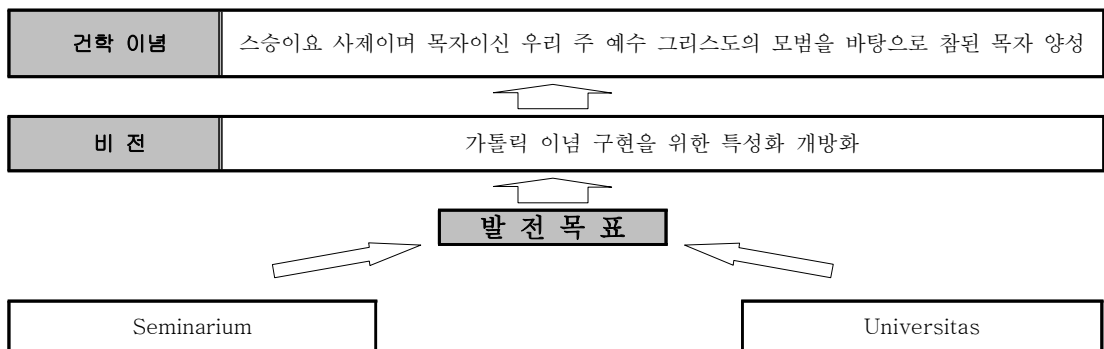
<참조> 교육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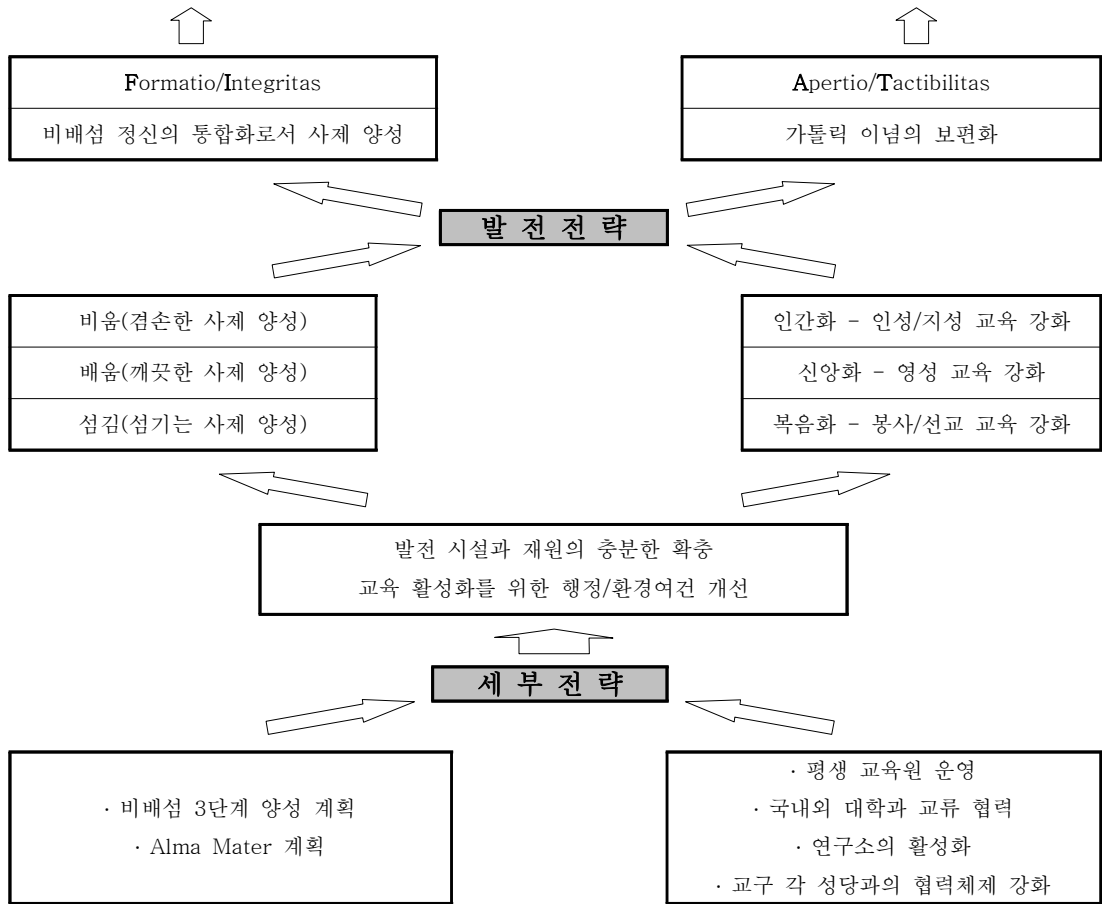


3. 중장기 발전계획

본 대학은 1주기와 2주기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본교의 설립목적인 ‘올바른 사제 양성’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통하여 ‘FIAT2013’이라는 ‘대전가톨릭대학교 중 ·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보다 더 발전시켜 ‘FIAT2030’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다.

‘FIAT2013’ 기본계획





본 대학의 발전계획인 ‘FIAT2013’의 발전전략들은 ‘특성화’와 ‘개방화’라는 두 가지의 비전을 기초로 이루어진 계획이었다. ‘FIAT2013’의 발전전략들은 ‘사제 양성’이라는 본교의 특성이자 교육목표에 대한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을 문화에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과거의 폐쇄적 성격을 벗어나 개방함으로써,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사제 양성 특성화’와 ‘대학의 개방’이라는 비전과 이에 따른 전략들은 본교의 근본 설립이념인 ‘가톨릭 정신의 구현’을 위한 계획들이고 훌륭한 사제 양성은 사회복음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여건을 위한 대학의 노력은 아울러 사제 양성의 중요한 교육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가. 비·배·섬 정신의 통합화로서 사제 양성(Formatio)

가톨릭 사제 양성 기관인 본교의 기본적인 교육철학은 ‘비움 · 배움 · 섬김’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움은 성숙한 사제를 목표로 한 인성 · 영성 교육을 의미하며, 배움이란 수업 및 강의와 연구를 통한 거룩한 학문(Scientia sacra)과 교양에 있어 사제로서 필요한 지적소양 교육을 말한다. 섬김은 사제의 실존적 의미인 봉사와 헌신을 위한 사목실습과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이념들은 상호 유기적인 연계작용을 통하여 본교의 교육목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 양성에 기초가 되며, 이를 ‘FIAT2013’에서는 통합교육(Educatio integrali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배섬 정신의 통합화로서 사제양성(Formatio)이라는 교육이념의 바탕 위에서 “비·배·섬 3단계 교육계획”과 , “Alma Mater 계획”의 두 가지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 “비 · 배 · 섬 3단계 교육” 계획

이 계획은 지성 · 영성 · 인성 · 사목실습 이라는 본교 교육의 필수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려는 체계적인 계획이며, 그 발전과정과 단계적 세부사항들이 구체화 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비 · 배 · 섬 3단계 교육” 계획을 통해 사제 양성이란 같은 목적을 지닌 다른 가톨릭계 6개 신학교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고 이를 본교의 특성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 계획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영성 발달의 추위에 따른 3단계 영성교육이며, 다음으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이며, 동시에 각 학년과 영적인 성숙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 · 현장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나) “Alma Mater” 계획

이 계획은 본 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된 일선사제들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본교의 건학취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제 양성’에 부합하기 위한 계획이다. ‘Alma Mater’는 일반적으로 ‘모교(母校)’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들을 모교를 일컬어 ‘생명을 양육한(alma)’ ‘어머니(mater)’에 비유하여 부

르는 말이다. 본교는 성소의 못자리인 동시에 한 사제를 양성하는 양성소로서, 생명을 잉태하는 심정으로 성소의 씨앗을 키우고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세상 끝날까지 응답할 사제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본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다.

본 계획은 본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의 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는 것과 서품 후에 사제평생교육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가톨릭 이념을 보편화하기 위한 개방화(Apertio)

가톨릭 이념의 사회적 보편화를 위해 기존의 제한적이며 폐쇄적인 신학교의 특성을 과감히 탈피해 대사회에 문호를 개방한다.

오늘날의 학교는 현대 생활에 개방된 공동체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접촉, 즉 학생들의 가정과의 접촉, 젊은이들의 세상과의 접촉, 지역 보편적 차원의 교회 생활과의 접촉, 인류의 문제와의 접촉 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무분별한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방화’라는 비전 또한 본교의 교육이념인 ‘비움 · 배움 · 섬김’의 철학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사회일반이기에 새로운 개념의 형태로 분화되어 ‘인간화 · 신앙화 · 복음화’로 세분화 되었다. 먼저 인간화는 인성 · 지성교육을 의미하며, 신앙화는 영성교육, 그리고 복음화는 봉사와 선교 교육을 의미한다.

가) 인간화 교육

본교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학생이나 교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와 가치 교육도 병행할 것이며, 부설연구소의 활발한 연구를 통한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할 것이다.

나) 신앙화 교육

가톨릭 평신도와 수도자를 위한 영성 프로그램에 좀 더 내실화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과정의 ‘교리신학원’과 ‘전례음악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평생 교육원의 일일 피정, 단기 영성 프로그램 및 기도 학교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에는 사제평생교육원과 수도자기숙사를 준

비하여, 전국 단위의 사제와 수도자를 위한 영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 복음화교육

본교는 복음화 교육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복음화 대학원과 교리 신학원 등을 통하여 선교사를 양성하고, 사이버 강좌와 한국 교육원을 신설해서 세상복음화에 노력할 것이다.

본교는 2005년에 ‘부설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좀 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가톨릭 정신의 토착화와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올바른 가치관 및 지식교육의 증진을도우며, 가톨릭 신자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도모하고, 전문 지식인의 양성(교리교사, 전례 봉사자, 상장례 봉사자)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교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가치와 윤리 교육, 생명교육, 철학)과 건전한 문화생활 교육(심리상담, 효행프로그램, 노인대학, 교양 및 취미, 문학)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신앙인들의 임무는 그리스도적이고 복음적인 모든 능력과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까지도 복음 선교를 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선교 활동의 무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학술, 국제 활동, 홍보 등 광범위한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본교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와 떨어진 본교의 지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양질의 수업을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외적으로 복음 선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보다 많은 평신도들에게 습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 장기발전계획의 실행 계획

본 대학의 발전 전략 체계는 각 영역별 실행 계획의 목표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FIAT2013’의 체계도에서 본 바와 같이 실행 계획들은 발전 목

표→ 발전 전략→ 세부전략→ 실행 계획 순서의 논리적 체계화로 이루어졌다.

본교의 실행 계획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로 이루어졌다. 본교의 실행 계획의 실천은 발전 계획서와 총장의 제안을 통해 각 위원회별로 분담·추진되며, 각 위원회들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검토·심의된다.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담당 위원회의 책임 하에 매 학기 말 그 추진 과정과 실적을 보고하며, 추진 실적의 정도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매달 회의를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같은 공간에 거주한다는 장점을 살려 수시로 의견교환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대학의 실행 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은 대학 발전 기금의 모금과 재단 전입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의 대학 발전 기금 모금액은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하여 대학 발전 기금의 충분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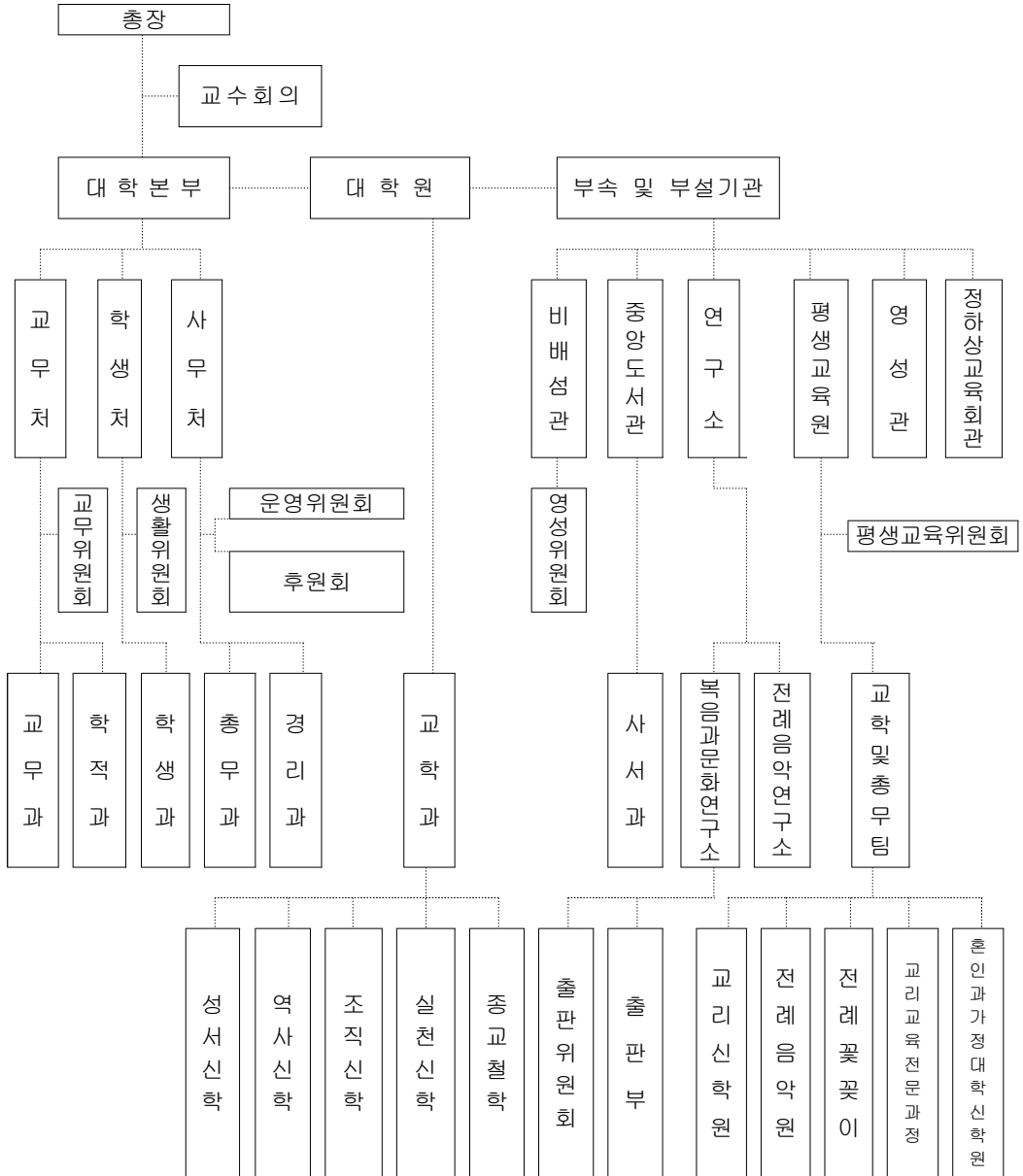
4. 주요 연혁

1992년 대학 설립 인가를 출발점으로 시작한 본교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92. 12.24	대학설립인가
93. 3. 2	대전가톨릭대학 개교 및 입학식
95. 10. 3	대전가톨릭대학 준공식
96. 11. 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97. 8.30	영성관(1학년 교육관) 준공
'00. 3. 4	부설 교리신학원 개원
'01. 2.25	부설 대전가톨릭음악원 개원
'01. 6. 28	대전가톨릭대학교로 교명 변경
'01. 7. 10	정하상 교육회관 준공
'05. 10.21	부설 평생교육원 개원

5. 행정 조직 및 기구

<대전 가톨릭 대학교 조직 및 기구>



6. 교수 현황

2013년 10월 1일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합하여 전임교원은 교수 1명, 부교수 2명, 조교수 9명이며 소속 교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속	전 임 교 수					전 임 외 교 수			합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법정정원	외래교수	기타교수	계	
신학과	1	2	9	12	12	14		14	26
계	1	2	9	12	12	14		14	26

7. 직원 현황

구분	정 규 직							비정규직 (B)
	교육 전문직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기성회직	기타	계(A)	
정원		13	4	20			37	0
현원		9	4	13			26	10

8. 학생 현황

2013년 11월 1일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수는 학부 76명 및 일반 대학원 59명을 포함하여 총 135명이다.

■ 학생 현황(2013. 11. 1. 현재)

구분	편제 정원(A)	재적생(B)	휴학생(C)	재학생	비고
대 학	160	114	38	76	
대학원	90	66	7	59	
계	250	180	45	135	

9. 교육과정 편성 및 특색

본 대학은 가톨릭교회에서 봉사하는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양성에 관한 교회의 보편적 · 전통적 규정과 가르침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대학의 교육목적에 위한 교육과정은 전 세계의 가톨릭계열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일 학문과 성직자 양성과정의 일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있다. 본 대학은 이를 기초로 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교육 내용을 첨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원리가 되는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1965.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Tria iam iustia), 1985.
- 가톨릭 교육성, 미래 사제들의 신학교육에 관한 서한(Tra i molteplici segni), 1976.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의 철학교육에 관한 회람(En sette periode), 1972.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의 전례교육에 관한 훈령(In ecclesiasticam futurorum), 1979.
- 가톨릭 교육성, 신학생들의 교회법과 교육에 관한 회람(Postremis hisce annis), 1975.
- 가톨릭 교육성, 신학교 영성 교육 중 매우 절박한 문제들에 관한 회람(The document), 1980.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과 교회의 사회 교리, 그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지침(In questi ultimi decenni), 1988.
- 가톨릭 교육성, 사제 양성에 있어서 교부 연구에 관한 훈령(Inspectis dierum), 1989.
- 가톨릭 교육성, 지적 영역 교육에 있어서의 성모 마리아에 관한 회람(La seconda assemblea), 1988.
-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대신학교 교육지침(La Congregazione), 1987.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사제 양성 지침, 2001.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실현하기 위한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몇가지 특색을 가진다.

가) 교육의 원리에 충실한 교과과정 편성: 가톨릭교회가 지니는 보편성과 오랜 역사적 경험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교회가 제시하는 교육의 원리에 충실하

도록 한다. 특히 그리스도교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전통적 학문을 가능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봉사자로 양성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 과정 편성: 다양한 문화와 현대세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신속하고도 심도 깊은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빛으로 조명(照明)하며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한다. 다른 한 편으로 한국사회가 지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 요구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 대학의 특성화: 본 대학의 교육 이념인 ‘비움 · 배움 · 섬김’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성화 정책의 목표를 ‘지식과 능력이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인성과 영성에 기반을 두는 봉사자’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사회 속에 그리스도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것을 대학의 특성화 목표로 삼고 있다. 인성 및 영성, 사목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대사회적인 봉사활동과 문화 활동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이는 본 대학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라) 봉사하는 인간을 지향하는 교육: 하느님의 사랑 받는 창조물로서 그분의 모상(模像)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교의 가치에 관통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사고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노력한다.

본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과정을 하나의 교육 과정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학의 발전단계에 따르는 신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인 동시에 통합적인 인성, 영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학부 교과과정 편성표>

1 학 년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과 목	1	2	과 목	1	2	과 목	1	2	과 목	1	2
영성입문 (김유정)	2		기초신학 (김석태)	2	2	모세오경 (한정현)	3		예언서 (안소근)	3	
신학입문 (곽승룡)		2	전례입문 (조학균)	2		역사서 (안소근)		2	요한복음 (이재훈)	2	
구약입문 (한정현)	2		철학적인간학 (권세진)		2	공관복음 (한필수)		2	사회교리 (박상병)		2
신약입문 (이재훈)		2	인식론 (권세진)		2	신.삼위일체론 (정우석)	2		그리스도론 (곽승룡)	3	
철학개론 (조규홍)	2		고대교회사 (김기만)	2		성령론 (송인찬)		2	교회론 (윤주현)		3
논리학 (조규홍)		2	중세교회사 (김기만)		2	은총.구원론 (윤주현)		2	성사론 (송인찬)	2	2
고대철학사 (김춘오)	2		근대철학사 (권세진)	2		창조.종말론 (윤주현)	3		형이상학Ⅱ (김춘오)		2
중세철학사 (권세진)		2	현대철학사 (조규홍)		2	교부학 (배승록)	2	2	기초윤리신학 I, II (김수겸)	2	2
라틴어 (서봉세)	2	2	동양철학 (이대근)	2	2	근대교회사 (김기만)	2		불교 (이대근)	2	
교회음악 (김현승)	2		히브리어 (한정현)		2	현대교회사 (김기만)		2	세미나	2	
국문학 (박영환)	2	2	희랍어 (이재훈)	2		형이상학 I (권세진)	2		선택과목		2
영어 (문창호)	2	2	사회학 (김소임)	2		종교철학 (권세진)		2	학사학위논문		1
교육학 (김현주)		2	심리학 (김인호)	2		윤리철학 (조규홍)		2			
한국교회사 (김정환)		2	성과독신 (황광현)		2	논문작성법 (이성재)	1				
체육	1		원서강독 (문창호)	1	1	영어회화 (안빠뜨리시오)	2	2			
학 점	17	18		17	17		17	18		16	14
	35			34			35			30	
전체 학점수 : 210점 [학부: 134점, 대학원: 67점]											

<대학원 교과과정 편성표>

대학원 1			대학원 2			대학원 3		
과 목	1	2	과 목	1	2	과 목	1	2
지혜문학 (민병섭)		2	시 편 (안소근)	2		전례·성사실습 (최견우)	2	
사도행전 (한필수)	2		바오로계문헌 (한필수)		3	설교실습 (송인찬)	2	
윤리신학 I, II (유혜숙)	2	2	교회법 각론 (박지목)	2		교리교수실습 (김두한)	2	
교회법 총론 (박지목)		2	교회법(혼인법) (이의현)		2	사목상담 (박재만)		2
마리아론 (곽승룡)		2	사목신학 (황광현)	2		사목행정 (김기룡)	2	
전례학 (조학균)	2	2	교리교수법 (김두한)		3	특수사목실습		2
영성신학 I (김유정)	2		설교학 (김두한)		2	사제 직무와 영성 (경갑룡)		S
영성신학 II (이성재)		2	선교학 (김영근)	2		봉헌생활 (최길자)	S	
세미나-전례기도 (서봉세)	2(P)		요한묵시록 (민병섭)	2		세미나	2	
선택과목-사제영성 (박재만)	2(P)		한국종교사상 (이대근)	3		석사학위논문		1
			선택과목		2			
			세미나	2				
			종합시험		1			
학 점	12	12		15	13		10S	5 S
	24			28			15 SS	
	전체 학점수 : 210점 [학부: 134점, 대학원: 67점]							

10. 주요 시설 설비 현황

1) 교육 기본시설

<교육기본시설 현황(2013. 10월 1일 현재)>

구분		합계		
		기준	보유	보유율(%)
교지시설		7,200	161,947	2,249.3
교사시설	교육기본시설	7,200	9,019	
	지원시설		12,304	
	계		21,323	296.2
	부속시설		2,654	
	기타시설		9,362	
	합 계		33,339	

2) 교육지원시설

<도서관 현황>

구분		현황	학생(전공) 근거지표
재학생수		135	
도서관수		1	
도서관직원수		3	
열람좌석수		360	학생당 2.7석
도서자료	국내서	91,462	
	국외서	34,643	
	계	126,105	학생1인당 927.2권
비도서자료(중)		5,813	
전자자료	국내(피키지)	3	
	국외(피키지)	2	
인쇄형 연속간행물	국내(중)	96	
	국외(중)	81	

제3장 자체평가 실시 방법

1. 자체평가의 대상

201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는 2011년 평가를 기본으로 학교의 대외적 경쟁력 향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실시한다. 즉, 비교 대학과 평가 지표 상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표준적으로 지표화하고 그 지표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2. 자체평가의 자료

201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의 자료는 비교대학으로 선정된 조직의 평가지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 이 정보의 출처는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kr> 2013년 대학정보공시자료)이다. 대학정보공시자료는 각 대학이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고시된 공시항목에 대해 매년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공신력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부자료에 대한 검증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평가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지표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 되기도 하지만, 자체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시된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체평가의 자료는 자체평가의 지표로 선정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진학률과 취업률 그리고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의 9개 지표의 정보이다. 이들 정보는 모두 양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다.

3. 자체평가의 지표와 산출식

201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의 지표는 3개 영역에 걸친 9개 지표이다.

학생·교육영역은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진학률 및 취업율로 구성되며 총 100점 가운데 20점의 비중이 주어진다. 교육여건영역은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그리고 교원연구부분으로 구성되며 40점의 비중이 할당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영역은 1인당학생장학금지급과 교육비에 20점의 비중이 배당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합계	학생(5)		교육(15)			교육여건(40)		대학재정(40)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진학율	졸업생 취업율	교원 연구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100	2	3	3	2	10	20	20	20	20

평가지표 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생충원율: 단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4-다. 신입생충원율(2013년 1학기 신입생)

$$* \text{신입생충원율} = \frac{\text{정원내 입학자수}}{\text{정원내 모집인원}} \times 100$$

② 재학생 충원율: 단위%

4-라-1 재학생충원율(2013년 4월 1일자)

$$* \text{재학생충원율} = \frac{\text{재학생수}}{(\text{학생정원} - \text{학생모집정지인원})} \times 100$$

③ 졸업생 진학율

5-나 졸업생진학율(2012년 8월과 2013년 2월 졸업자 중 진학자 현황)

$$* \text{진학률} = \frac{\text{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④ 취업률: 단위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

5-다. 졸업생 취업현황 (2013년 2월 졸업자)

$$*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졸업자} - \text{취업률 제외자}} \times 100$$

*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해외취업자+영농업종사자+개인창작활동 종사자+1인(창)사업자+프리랜서

*취업률제외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⑤ 교원 1인당 연구비: 단위 천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표기

11-가, 연구비 수혜실적(2012년 실적)

$$* \text{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 \frac{(\text{교내연구비} + \text{교외연구비})}{\text{전임교원수}}$$

⑥ 전임교원확보율: 단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6-다 전임교원확보율(2013년 4월 1일 기준)

* 전임교원 확보율= 대학의 전임교원수를 교원법정정원으로 나누어 산출

⑦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표기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2013년 4월 기준)

$$* \text{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편제정원} = \frac{\text{편제정원}}{\text{전임교원수}} \times 100$$

$$* \text{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 = \frac{\text{재학생}}{\text{전임교원수}} \times 100$$

⑧ 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 단위 천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표기

11-다-2 장학금 수혜현황 (2012학년 1학기+ 2학기 현황)

$$* \text{장학금 지급률(재학생 1인당 수혜장학금)} = \frac{\text{교내 및 교외 장학금의 합}}{\text{재학생수}}$$

⑨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표기

* 총 교육비: 9-나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의 총교육비, 9-나-2 “학생1인

당 교육비 산정근거”

* 재학생수: 2012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수의 합

* 학생 1인당 교육비 = $\frac{\text{총 교육비(교비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text{재학생수}} \times 100$

4.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2013년 대전가톨릭대학교 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비교대상과의 매칭작업은 공시자료에 제시된 지표값을 사용하고, 교육관련지표는 학과의 신설, 학과명 변경 또는 폐과로 인해 일부 대학교에서 매칭 학과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비교 대학의 범주내에서 활용한다. 또한, 비교대학의 수준이 본교와 직접 매칭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

둘째, 대전가톨릭대학교의 지표 값을 타대학과 비교하여 100점 만점으로 전환한다. 변환점수는 각 지표에 대한 절대점수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아울러 비교 대학들과의 점수비교를 통해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text{변환점수} = 50 + 50 \times \frac{(\text{대전가톨릭대지표값} - \text{최하대학지표값})}{(\text{최고대학지표값} - \text{최하대학지표값})}$$

* 최고와 최하 대학의 지표 값 사이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결정됨

셋째, 변환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각 평가지표에 대해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점수는 각 지표에 대한 비교대학들 사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환산점수	등급점수
100~90	5
89~80	4
79~70	3
69~60	2
59이하	1

넷째. 최종점수 및 종합 점수 산출은 지표별 개별 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최종점수는 변환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등급점수를 활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출될 수 있다. 각각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변환점수에 의한 최종 점수} = \frac{\text{변환점수}}{100} \times \text{가중치}$$

$$\text{*등급점수에 의한 최종 점수} = \frac{\text{등급점수}}{5} \times \text{가중치}$$

각 지표에 대한 최종 점수가 산출되면 6개 지표 값을 합산하여 종합 점수를 도출한다. 종합 점수 역시 변환점수에 의한 방식과 등급점수에 의한 방식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의해서 비교대학과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제Ⅳ장 자체평가 결과

1. 학생 현황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설립 성격이 유사한 가톨릭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다만, 가톨릭계 대학들은 각 학교 고유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않는 산술적 지표값에 의한 비교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는 관계로 표준적 지표값 산출과 비교 우위 등의 지표산출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현 상황을 설명한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신입생 충원율

본 대학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톨릭 신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톨릭 성소의 못자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확고한 성소의 의지를 가지고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인가의 판단을 위하여 신입생선발 과정에 있어 특수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입학전형 유형별로 모집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원 예정자들에 ‘예비 신학생’ 제도를 두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톨릭교구청의 ‘성소국’(성직지망생들을 발굴·육성하는 교구청의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까지 그리고 타 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학생까지 사제성소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 예비신학생이라는 명칭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비 신학생이 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입학생으

로 추천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 한순간의 충동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단순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과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본 대학에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입학원서를 제출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천과정을 통해 지원 적격자들만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당해 연도에 지원하고자 해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어 해마다 발표되는 신입생 지원자수 및 충원율은 일반 대학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의 참고표는 2013년 8월 현재 본 대학에 지원하고자 성소의지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가하는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표 1-1> 교구별 예비신학생 관리 현황

학년	대전교구	청주교구	합계	비고
중 1	120	85	205	
중 2	110	50	160	
중 3	85	45	130	
고 1	60	30	90	
고 2	38	17	55	
고 3	28	15	43	

* 2013년 8월 현재

2013년 동일 목적을 가진 가톨릭계 신학과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94.85%, 광주가톨릭대학교 60%, 대전가톨릭대학교 30%, 부산가톨릭대학교 99.9%, 수원가톨릭대학교 38.9%, 인천가톨릭대학교 95%로 나타나고 있다.

2) 재학생 충원율

본 대학은 가톨릭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성소의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양성을 위하여 특수한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부4년과 대학원 3년의 총 7년 과정으로 이루어

져 있고,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3년 동안 매년 가톨릭 교회법에 의한 각종 직위를 받아야 한 학년씩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과정을 이상없이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비로소 가톨릭 성직자로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학생 생활면에서 보면, 7년의 교육과정 중 군입대 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매학기동안 기숙사생활을 하며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고 심신수양과 가톨릭 영성훈련을 쌓게 된다. 방학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소속된 가톨릭성당에 소속되어 본당 주임신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하고 개학 초에 방학 중 생활 상태 등을 기록한 '방학생활증명서'를 학교로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신입학을 제외한 편입학 등의 추가적인 학생의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재학생에 대한 충원을 또한, 신입생 충원율의 증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 다만, 재학생 충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2학년을 마친 입대대상자 전원이 군복무를 하게 내규로 정해져 있어 군복무 후 복학자들의 증감에 의한 재학생 충원율 변동이 해마다 생기게 된다.

2013년도 가톨릭계 대학 중 성직지망자만을 양성하는 가톨릭계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서울가톨릭대학교 117%, 인천가톨릭대학교 101%, 광주가톨릭대학교 50%, 수원가톨릭대학교 46.4% 대전가톨릭대학교 48.1% 그리고 부산가톨릭대학교 106%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2-1> 재학생 충원 현황

연도	편제정원	재학생			재학생충원율(%)
		남	여	계	
2011	160	114		114	71.3
2012	160	118	1	119	74.4
2013	160	77		77	48.1

3) 지표별 평가점수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신입생 충원율의 경

우, 변환점수($50=50+50\times\frac{30-30}{99.9-30}$) 50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51.2=50+50\times\frac{48.1-46.4}{117-46.4}$) 51.2점에 1등급으로 나타났다. 개별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신입생충원율은 1점, 재학생충원율은 1.5점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성직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산술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우리 대학의 현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2. 교육 현황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설립 성격이 동일한 가톨릭 종교계 대학 중 비교 가능한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자료에 대한 평가는 공시기관에 의해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졸업생 진학을

본 대학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란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적 배출보다는 교육이념과 목표에 잘 부합된 학생이 잘 육성되어 성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의 총 7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에서의 신학과 철학에 대한 기초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원에서 심도 깊은 신학과목을 마치게 된다.

가톨릭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가톨릭교회법에 의거하여 4학년 진급시부터 사제가 되기까지 4년 동안 매년 심의를 거쳐 교회성직체계에 따른 품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톨릭 성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4년의 과정은 전교육과정의 일부로서 대학원과정과 함께 모

두 이수하여야만 본인이 원하고 본교이 요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가톨릭성직자가 될 수 있게 된다.

본교의 경우 2학년 수료와 동시에 군입대 등의 휴학을 하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어 4학년 졸업과 동시에 자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지만, 비교대상 학교들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진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입대와 모라또리움(수련기간) 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 학교마다 공시된 진학률엔 약간의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는 있지만,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 등의 신분으로 수학하는 학생들은 진학하지 않고 학부과정만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공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10.4%, 광주가톨릭대학교 34.8%, 대전가톨릭대학교 33.3%, 부산가톨릭대학교 2.7%, 수원가톨릭대학교 71.1%, 인천가톨릭대학교 19.3%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2-1> 최근 3년간 졸업생수 현황

졸업연도	졸업생수(A)	진학자수(B)	진학율(B/A)	비고
2011	29	23	79.3	외국인유학생제외
2012	22	21	95.5	"
2013	42	14	33.3	"

2) 졸업생 취업율

본 대학은 가톨릭 사제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학부 4년과 석사학위과정 3년의 총 7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원 진학과 동시에 가톨릭교회의 직무(독서직/시종직)를 받고 매년 진학학년에 합당한 품위를 받고 진급을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반면 직무를 받지 못하여 진급하지 못하면, 아무리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여도 사제품에 오를 수가 없게 된다.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톨릭 성소자로서 성소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7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등록하여 독서직

과 시종직 그리고 부제품의 가톨릭 직무를 받아야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부와 대학원 전 교육과정을 마치고 가톨릭 사제가 되는 경우, 졸업생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국세DB자료 등에 의해 취업자로 인정되는데, 현재의 취업률 계산으로는 4학년 졸업생은 취업률이 0%이고 대학원 졸업생 취업율은 100%가까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극단에 가까운 현상을 해소하고자 2011년 8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종교 지도자 양성관련 학과로 심의, 인정을 받고 이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제외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본 교외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광주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신학과, 수원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신학과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3) 교원연구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은 연구비 집행 절차 및 증빙서류 관리 등을 개선함으로써 교수 연구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연구 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지원제도의 확립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이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밀착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행정전산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교육환경의 정립을 통한 올바른 연구 활동 지원제도의 정착은 연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질적인 교육여건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교육목표인 올바른 미래 사제 양성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대학은 소규모 대학으로 특정 연구지원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지원 역할을 주로 교학처가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교학처는 연구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주관 부서로서 연구 활동의 준비와 집행 그리고 결과 산출에 대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타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조직과 활동에 대한 체제 개편과 제도 개선은 5인의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의 역할

을 담당하는 교학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교수 연구 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연구 활동 체계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참조표 2-2> 연구 관리부서 및 지원 조직 간의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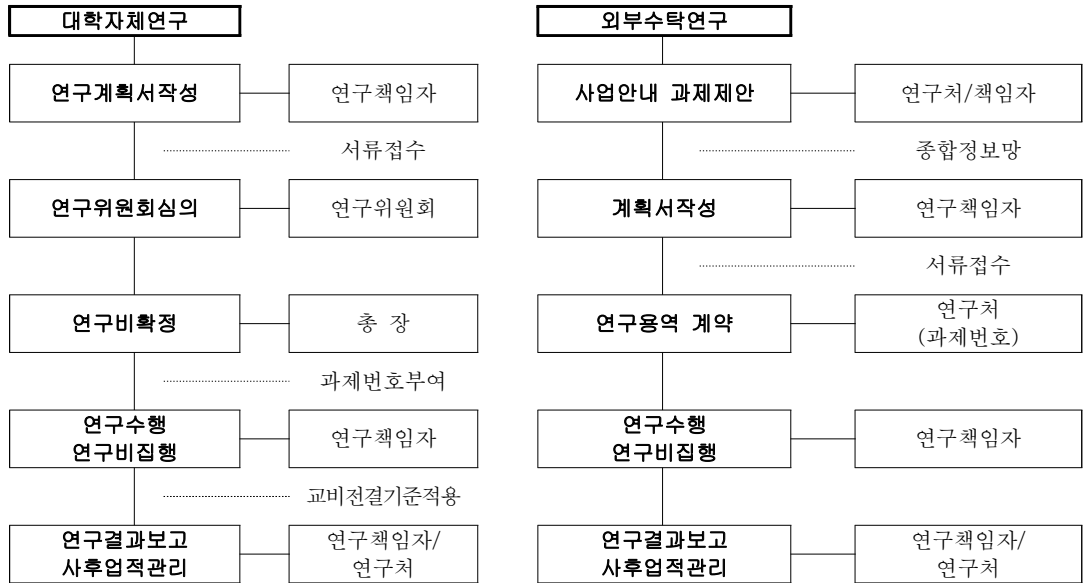
연구 관리부서 및 지원 조직 간의 업무흐름도	예산 확보(교학처) → 사업공고(대학 자체연구, 외부 수탁연구 과제) → 연구계획서 접수 / 평가 → 평가서 취합 / 검토 → 운영위원회 개최(1차 과제 선정) → 연구위원회(최종 선정) → 연구비 지원 → 연구보고서 접수
---	---

본 대학은 'Fiat2013' 계획의 일환으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연구 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을 세움으로써 연구 활동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였다. 본 규정은 연구비 집행절차와 증빙서류 관리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이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규정은 연구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 활동 지원제도,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연구 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지원 업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우선 대학 자체적으로 총장을 통한 연구과제와 자유공모를 통한 연구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연구담당부서인 교학처가 최근 3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하고 총장 및 각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요 예산을 편성한다.

대학자체 연구과제 공고는 연구 활동 시작 5개월 전에 요강을 발표하고 있으며, 학술 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외부수탁 연구과제에 대한 신청은 지원 부서에서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수 스스로 탐색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참조표 2-3> 연구비 지원운영절차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연구결과에 관해서는, 연구 성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 년 예산에 연구 관리비를 미리 책정하고, 연구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 연구 결과물의 출판 및 발표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2부씩을 제출토록 하여 도서관과 담당부서에서 각각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개인별 연구 성과는 별도의 중앙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교학처에서 개인 파일로 작성(한글D/B)하여 보관하고 있다. 연구 성과물은 추후에 연구 업적집 혹은 연구통계연보를 제작하여 기록할 예정이다.

연구비 관련 자료의 관리는 교학처에서 확인하고 경리담당이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연구비 관리와 집행은 연구비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① 연구비는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 ② 연구비는 효율적이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③ 연구비는 대학의 세입, 세출 예산에 편입되어 중앙관리가 되도록 한다.
- ④ 비목별 특성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고, 인건비는 계좌 이체를, 연구관련 직접 경비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⑤ 간접연구비는 대학의 장이 집행하도록 한다.

연구비 집행은 연구 활동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해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교무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구 지원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① 연구 수행자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 용역이 계약된 과제는 연구비 입금 전이라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며, 연구비 청구 및 입금 관리는 교무처에서 총괄한다. 연구 책임자는 과제 번호를 통보 받아 대학 연구비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② 연구 의욕 고취와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실적과 노력에 상응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Incentive 제도). 과제에 반영된 교수 인건비 한도내에서 지급 재원이 마련되며, 지급 한도는 직위별 평균 연봉의 30%이내에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기본 연봉 적용기간인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이다.

③ 연구 수행자에 대하여 교수 1인당 학부생 3명, 대학원생 2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연구 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박사 30만원/월, 석사 15만원/월, 학사 10만원/월)

④ 간접관리비(Overhead)를 징수한다. 징수 기준은 국가 및 출연기관 위탁기관 인정금액(총 연구비의 10%이내), 산업체 인정금액(총 연구비의 20%), 기타기관 인정금액(위탁기관 인정금액, 기준 미설정시 10%)으로 하고 있다. 간접 관리비의 회계 처리는 수입이 발생될 경우 교비 수입으로 처리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차년도에 집행하게 된다.

⑤ 연구 활동의 적시성과 활성화, 그리고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선 구매 후 정산을 실시한다. 연구자의 필요에 의한 긴급 구매 및 국내외 현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구매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하며,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본 대학에 상주하는 교수들은 가톨릭사제로 구성되어 있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정규교과과정에 대한 수업외에도 가톨릭 영성과 생활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교원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목적과 목표에 맞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대학본래의 설립취지이며 사명인 올바른 가톨릭사제양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대상대학의 2013년도에 공시된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를 보면, 가톨릭대학교 5,090.6천원, 대전가톨릭대학교 300천원, 수원가톨릭대학교 1,221.4천원이고 광주가톨릭대학교 0천원, 부산가톨릭대학교 1,356.6천원 그리고 인천가톨릭대학교 574.4천원으로 나타났다.

4) 지표별 평가점수

교육부분에 대한 분야별에 대한 지표별 평가점수를 보면, 졸업생 진학율의 경우, 변환점수($72.37=50+50 \times \frac{33.3-2.7}{71.1-2.7}$) 72.37점에 3등급을 나타냈으며, 졸업생 취업율의 경우, 변환점수는 ($100=50+50 \times \frac{100-100}{100-100}$) 100점으로 5등급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연구부분에 대한 평가점수는 ($52.95=50+50 \times \frac{300-0}{5090-0}$) 52.95점으로 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출된 개별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졸업생 진학율은 2.17점, 졸업생 취업률은 2점, 그리고 교원 연구 중 교원1인당 연구비는 5.3점으로 나타났다.

3. 교육여건

가. 비교대학선정

교육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한 가톨릭계열의 5개 대학교를 선정하였다. 성직지망자를 육성 배출하지 않는 타 대학의 신학과와는 의미있는 비교를 하기 난해한 점이 있으며, 매우 조심하여 평

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전임교원 확보율

본교는 미래의 참된 가톨릭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인 교수들로부터 철학과 신학에 관한 교수를 받아야 할 권리와 열과 성을 다하여 수확하고 생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교수진의 구성은 교내에서 상주하여 정규교육과정과 가톨릭영성생활을 교육하는 교수와 전문적인 지식을 강의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출강하는 외래교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적인 가톨릭 사제양성이 목적이므로 교육기본법 등에서 요구하는 교원확보가 충분하지만,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외래교수를 초빙하고 있다.

교수들 각 개인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은 지적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영성공동체 생활교육부분도 함께 하고 있다.

재학 중인 학생전원은 100%기숙사 생활을 하여 정규교과 과정과 가톨릭공동체 생활을 통한 영성교육으로 참된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교수들은 학교의 정규보직 외에 학년별 담임교수를 담당하거나 가톨릭 영성조로 편성된 일정한 인원을 담당하여 매월 학생들과 진로와 생활에 대한 면담을 하거나 가톨릭교회에서 요구하는 성사 등의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성직자양성을 목적으로 한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비교 대상대학들의 전임교수 확보율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신학과의 경우 편제기준 175.3%, 재학생기준 168.9%를 나타내고 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기준 200%와 재학생기준 360%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기준 100%확보율과 재학생기준 17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기준 73.7%와 재학생기준 14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엔 편제기준 75.5%와 재학생 기준 88.9%의 확보율을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엔 편제기준 66.8%와 재학생 기준 62.6%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학들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89.7%이고, 상위 15% 대학들의 평균은 186.5%를 나타내고 있다.

<참조표 3-1> 교수 확보 현황

학 과	학생수		교원 현황								전임교원확보율(%)			
			교원정원		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 수						전임교원		시간강사포함	
	전임교수 현황				외래교수	계(D)	편제(C/A)	재학생(C/B)	편제(D/A)	재학생(D/B)				
	편제	재학생	편제(A)	재학생(B)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C)
신학과	295	165	12	7	1	2	9	12	14	26	100	171.4	216.7	269.2
계	295	165	12	7	1	2	9	12	14	26	100	171.4	216.7	269.2

<작성 요령>

- 1) 201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장은 제외함.
- 2) 『교수확보율』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원(A)’는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교원 현황 작성 계획’의 계열별 교원 법정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 a) 학생수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재학생수의 단순합에 근거함.
 - b) 외래교수 환산인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를 9로 나눈 후 소수점을 절사하고 기입함
- 3) a) ‘전임교수수(C)’에는 전임교수만 포함되며, 겸임교원 등은 제외함.
 - b) ‘재학생수(D)’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합을 기입함.
- 4) 교수확보율(계)=[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수(계:계)/정원(계)]×100.
- 5) 전임교수당 학생수(계)=재학생수(계)÷전임교수수(계:계)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본교의 교수들은 학생들과 24시간을 한 장소에서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재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부 4년과 대학원 2년 그리고 가톨릭 성직자인 부제품의 1년 교육과정을 거쳐야 만 가톨릭사제가 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총 7년의 교육기간 동안 교수들은 학생들의 지적능력향상과 영적능력 배양을 위해 정규모

육시간외에도 생활지도에 관한 시간을 할양하여 지적·영적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진급하는 매년 말 성소심의 때에 이러한 상담 등을 통한 관찰내용을 토의하고 논의하여 진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교수 1인당 담당하여야 하는 학생수가 많다면 지적인 상담과 영적인 상담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성에 흘러갈 수 있어 수익자인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출강교수를 더 초빙하여 교수 개개인이 담당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합리적으로 성소심의를 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다음의 <참조표 3-2>는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본 것으로 재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학부와 대학원 학생 총 204명 대하여 전임교수 12명으로 교수1인당 13.8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24.6명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대상학교인 가톨릭대학교는 편제정원 기준 10.2명과 재학생기준 10.7명을 나타내고 있고,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 12.2명과 재학생기준 6.6명을 나타내고 있다.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 33.7명에 재학생기준 17.3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 31.6명과 재학생기준 33.5명을 나타내고 있고, 인천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편제정원 기준 27.5명에 재학생기준 23명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학에 대한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국대학들의 평균 학생 수는 38.1명이고, 상위 15%이내의 대학들도 평균학생수가 15.8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 전국대학들의 평균 학생 수는 33.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위 15%이내의 대학들은 평균학생수가 13.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조표 3-2> 교수 1인당 학생수 현황

학과	학생수		교원정원		교원현황			교수 1인당 학생수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재학생	전임 교수	외래 교수	계	전임교원		시간강사포함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신학과	295	165	12	7	12	14	26	24.6	13.8	11.3	6.3
계	295	165	12	7	12	14	26	24.6	13.8	11.3	6.3

<작성 요령>

- 1) 201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총장은 제외함.
- 2) 『교수확보율』과 관련하여 교원의 '정원(A)'는 학생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교원 현황 작성 계획'의 계열별 교원 법정정원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 a) 학생수는 학부와 일반대학원 재학생수의 단순합에 근거함.
 - b) 외래교수 환산인원은 담당시간 합계(실제 수업시수)를 9로 나눈 후 소수점을 절사하고 기입함
- 3) a) '전임교수수(C)'에는 전임교수만 포함되며, 겸임교원 등은 제외함.
 - b) '재학생수(D)'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의 합을 기입함.
- 4) 교수확보율(계)=[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수수(계:계)/정원(계)]×100.
- 5) 전임교수당 학생수(계)=재학생수(계)÷전임교수수(계:계)

3) 지표별 평가점수

가톨릭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대학에 대한 전임교원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지표별 평가는 편제정원 기준이나 재학생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교대상 대학들 뿐 만아니라 대학전국대학 상위 15%의 대학에 대한 평균과 비교하더라도 높게 평가됨으로 변환점수 100점에 5등급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전임교원 확보율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편제정원 기준 변환점수 $(62.46=50+50 \times \frac{100-66.8}{200-66.8})$ 는 62.46점과 재학생기준 변환점수 $(68.29=50+50 \times \frac{171.4-62.6}{360-62.6})$ 는 68.29점으로 각각 2등급의 등급점수를 환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2.66점과 13.66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편제정원 기준 변환점수 $(69.36=50+50 \times \frac{75.4-66.3}{89.8-66.3})$ 는 62.36점과 재학생기준 변환점수

$(93.2=50+50\times\frac{8602-66.5}{89.3-66.5})$ 는 93.2점으로 2등급과 5등급의 등급점수를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3.88점과 18.64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학재정 현황

가. 비교대학선정

비교 대학의 선정원칙은 대전가톨릭대학교를 제외한 동일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신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계열의 5개 내외의 대학교를 선정하였고, 전국 대학의 상위 15%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학생장학금 지급율과 1인당 교육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평가결과 종합

1) 1인당 학생장학금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성소목적에 의해 입학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는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톨릭 공동체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납부금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사제가 되고자 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소자원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속한 성당이나 가톨릭 교구 재단에서 대내·외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성소의지로 입학한 학생이 학교의 목적에 맞는 올바르게 참된 사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정환경이나 주변상황이 대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와 교회가 일체가 되어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학업에 필요한 납부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속 성당에서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여 성당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1차 지원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인원과 금액에 제한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비 부족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장학금에 대한 확충계획은 2010년도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30%정도의 학생들이 전액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총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선행 연구되었고, 2013년도에 대학원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장학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참조표 4-1> 최근 2개 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학년/ 학기	재학생수 (A)	평균 등록금 (B)	교외장학금		교내장학금		전체 (교내+교외)		장학금 수혜자비율 (C/A×100)	학생1인당 장학금 (E=D/A)	등록금대비 장학금 (E/B×10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C)	금액 (D)			
2012/1	119	2,880	14	12,990	112	237,480	126	250,470	105.9	2,104.8	73.1
2012/2	107	2,880	17	13,840	90	203,040	107	216,880	100	2,026.9	70.4
계	226	5,760	31	26,830	202	440,520	233	467,350	103	2,067.9	71.8

<작성 요령>

- 1) '재학생수'는 1학기의 경우 4월 1일, 2학기의 경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액 단위는 천 원임.
- 2) 평균등록금 = 등록금 수입 총액 / 등록학생수(단, 등록금 수입 총액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등록금 수입 총액을 의미함. 1학년의 경우 입학금은 등록금 수입 총액에서 제외함)
- 3) 장학금 수혜자 비율(계) = [전체: 인원(계)/재학생수(계)]×100.
- 4) 학생 1인당 장학금(계) = 전체금액(계)/재학생수(계).
- 5) 등록금 대비 장학금(계) = [학생 1인당 장학금(계)/평균등록금(계)]×100.

비교대상대학들의 최근 1년간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살펴보면, 가톨릭대학교 2,152천원, 광주가톨릭대학교 0천원, 대전가톨릭대학교 4,136천원, 부산가톨릭대학교 2,293천원, 수원가톨릭대학교 6,459천원, 인천가톨릭대학교 2,448천원

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가톨릭대학교의 경우, 학생등록금이 전액 면제인 점을 감안하여 본 비교 평가대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1인당 장학금에 대한 평가는 가톨릭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1인당 장학금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대학의 평균 장학금액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전국대학의 평균 장학금은 2,235천원이며, 최소 0천원에서 최대 8,575천원까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상위 15%의 평균은 3,486천원이고 상위 5%의 평균 장학금액도 4,46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치상의 비교분석을 살펴보면, 비교 평가되는 5개 대학중 4개 대학이 상위 5%의 평균장학금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 1인당 교육비

1인당 교육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며, 납입금 책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별 전공계열별로 교육비 수요가 서로 다르며,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교육비 배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학별 전공계열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학과나 전공계열과, 혜택을 받고 있는 학과나 전공계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학과별 전공계열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교육비를 배분하거나 학생 1인당 납입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학생이 납부한 납입금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교비회계 전체의 총교육비를 재학생수로 나눈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교육비 환원율은 100%가 되어야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교육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게 된다. 본교의 2013년도 1인당 교육비는 22,414.3천원으로 전국사립대 평균 11,664.6천원보다는 높게 나타

나고 있고 상위 15%대학 평균 25,091.8천원보다도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공시결과 전국152개 대학 중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본교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3) 지표별 평가 점수

학생장학금 지급율에 대한 평가는 전국대학 상위 5%이상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변환점수 100점에 5등급의 등급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 장학금에 대한 동일유형의 대학과 비교 평가했을 경우, 변환점수 $(76.97=50+50 \times \frac{6,458-4,135}{6,458-2,152})$ 는 76.97점으로 3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5.4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한 비교평가대학과의 비교평가를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변환점수 $(60.1=50+50 \times \frac{25,961-22,414}{25,961-8,358})$ 는 60.1점으로 2등급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변환점수에 의한 최종점수는 12.02점의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frac{\text{총교육비}}{\text{재학생수}} \times 100$)을 나타낸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소0%에서 최대 1,204.5% 안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144.1%로 나타내고 있다. 상위 15%에 대한 평균비율은 167.2%이고, 상위 5%에 대한 평균비율도 309.5%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가톨릭대학교의 경우 348.8%의 학생1인당 교육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 V 장 평가결과의 종합 및 제언

1. 종합

영역	지표	대전 가톨릭대	평균	최고	최하	변환 점수	등급 점수	가중치	최종		
									변환	등급	
학생	신입생충원율	30	70.4	99.9	30	50	1	2	1	0.4	
	재학생충원율	48.1	78.1	117	46.4	51.2	1	3	1.5	0.6	
교육	졸업생진학율	33.3	28.6	71.1	2.7	72.4	3	3	2.2	1.8	
	졸업생취업율					100	5	2	2	2	
	교원연구	300	1,421	5,091	0	53	1	10	5.3	2	
교육 여건	전임교원 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100	115.2	200	66.8	62.5	2	20	12.5	8
		재학생 기준	171.4	165.3	360	62.6	68.3	2		13.7	8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편제정원 기준	24.6	23.3	10.2	33.7	69.4	2	20	13.8	8
		재학생 기준	13.8	17.5	6.6	33.5	93.2	5		18.6	20
대학 재정	1인당학생장학금	4,135	3,496	6,458	2,152	77	3	20	15.4	12	
	1인당 교육비	22,414	18,272	25,961	8,358	60.1	2	20	12	8	
총 점								100	71.7	54.8	

본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교를 포함한 비교대상 대학들의 이론적인 평균은 편제정원기준으로 69.1점, 재학생기준으로 71.4점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편제정원기준 65.4점과 재학생기준 71.7점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보면, 편제정원 면에서는 비교대상대학의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재학생기준 면에서는 이 평가에서 설정한 지표상으로 비교대학 중 평균치보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 지표간의 상호보완으로 총점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지표에서는 교육비 환원을 부분이 20점을 차지하였지만 2013년 평가에서는 학생1인당 교육비 지표값이 12점으로 나타나 총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생영역은 5점 만점에서 2.5점으로 50%(11년 대비 30% 감소), 교육영역은 15점 만점에 9.5점으로 63.3%(11년 대비 약 5% 감소), 교육 여건은 40점 만점에 편제정원기준 26.3점으로 65.8%(11년 대비 4% 감소)와 재학생기준 32.3점으로 80.8%(11년 대비 27.8% 증가), 대학재정영역은 40점 만점에 27.4점으로 68.6%이었다. 이 평가결과를 보면, 본교는 교육 여건과 대학재정 영역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여건영역에서는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평균과 비슷한 지표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의 지표별로 보면, 학생영역의 2가지 지표 중에서 재학생충원을 1.5점(50%)과 신입생충원을 1점(50%)으로 비교대학의 평균 2.2점(73.3%)과 1.6점(80%)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3년 신입생의 감소와 많은 수의 졸업생 배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종교계 비교대학들의 특성에 따른 지표 값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항이다.

교육영역은 2011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영역이었지만 교원1인당 연구비 지표에 대한 실적 점수가 5.3점(53%)으로 비교대학에 비해 매우 낮았고 금액면에서도 평균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표들인 졸업생 진학율과 취업율은 각각 2.2점(73.3%)과 2점(100%)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종교계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의 특수한 교육체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여건 영역은 비교대상대학외의 전국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의 높은 지표값을 가질 수 있겠으나, 비교대상대학과 비교했을 경우,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12.5점(62.5%)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9점(69.5%)를 나타냈다. 그리고 재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은 13.7점(68.5%)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18.6점(93%)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본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

원 1인당 학생수 분야에서 비교대상 학교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재정영역의 2가지 지표들은 2011년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사립대학과의 비교 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지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비교 선정 대학과의 평가에서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지표 값을 나타냈다. 1인당장학금은 15.4점(77%)을 1인당교육비는 20점 만점에 12점(60%)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언

본교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입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가톨릭 성소자 확보를 위해 교구담당자와 학교담당자가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발맞추어 맞춤형 입시제도의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로부터 성소자들이 성소의 길을 자신의 길로 생각하고 노력할 때 흔들리는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교의 연구영역의 실적 제고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영역에 대한 실적 저조는 대외적인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대외경쟁력 제고는 당분간 요원할 것이다. 그간의 연구 성과와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연구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분화된 전공을 가진 교수진을 보다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1년에 대비 2013년에도 교원의 전문분야 확보율은 비교대상대학들과 비교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가톨릭계 대학들이 사립대학 전체와 비교해 볼 때 교원확보율에서 높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교원들이 철학과 신학 영역의 어느 일부분에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가톨릭성직자 양성을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교과영역에 대해서 장기간의 계획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교과영역에의 교원 확보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수들은 학생교육과 교수본연의 연구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대학재정 영역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회계가 주로 학교 후원금과 전입금에 의존하여 구성되어 학생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 많이 줄었다 하지만, 장학금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부분의 낭비적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제거하여 1인당 교육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제VI장 부록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교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영역) ① 평가의 대상은 본교의 모든 기관(하부조직 및 학과·학부·전공분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자체평가의 영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의 공시대상정보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학교발전계획 및 경영
2. 교육
3. 연구
4. 학생지원
5.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제3조(시기 및 공시) ① 자체평가는 매 2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에 의한 종합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방법, 범위 등 공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자료작성 및 실사) ① 자체평가의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전임

교수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총장은 각 대학(원)의 특성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 개발, 평가의 시행방안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 평가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 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평의원회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사항은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